

대구광역시

최기문, 최고 교육환경서 미래 꿈꾸는 영천 건설

교육부·국방부 협약 공모 영천고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최종 선정

최기문 영천시장이 환하게 웃었다. 교육부와 국방부가 영천고를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에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도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로, 우수 학생들이 영천으로 와서 수준을 높이고 인구 또한 1000여 명이 증가, 교육 문제로 영천을 떠났는데 이제는 유학을 오게 하고,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의 한민고라 불리는 자공고는 남녀 공학의 지속형 학교로 특목고, 자사고 수준 이상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한민고와 컨소시엄을 구성,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교육 없이도 방과 후, 주말 심화 일감으로 대학 입시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는다.

내년 하반기 전철에 따라 전국에서 학

년별 110명, 5개 학급을 모집해 2026년 3월부터 수업에 들어간다.

군인 자녀가 60%를 차지하고 일반은 영천지역 20%, 경북도민 20%로 구성된다.

결국 지역민이 최대 40%까지 가능한 셈이다.

3년 뒤인 2029년부터 학년별 154명까지 총원하고 군 자녀 비율을 70%, 영천 시민과 도민은 각 15%로 조정한다.

영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경북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명칭과 교장, 교원 등 세부 사항을 공모한다.

그동안 영천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제2의 한민고 유치에 고군분투해 왔다.

최근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금호 연장, 교육발전 특구 지정, 합계출산율과 고용률 부분 도내 1위, 육군3사관학교와 제2탄약창 등 군부대가 소재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영천고 동창회·운영위를 비롯한 시민들의 염원과 영천시 장학기금 380억 모금 등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이 큰 보탬이 됐다.

시는 2011년에 제2한민고 유치에 나서 2015년에 국방부의 선택을 받았으나, 이듬해 설립이 보류된 바 있다. 최은하 기자



권향엽, 한수원 삼중수소 ‘특혜매각’ 의혹 폭로

내부 보고자료 통해 특혜매각 정황 확인



권향엽 의원

원전에서 생산, 핵융합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삼중수소가 특혜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혜제기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사진) 의원이 국정정감사에 터트렸다.

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관인 이사로 있는 ㈜에이젠코어에 삼중수소를 4분의 1 가격에 특혜매각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권 의원은 한수원 내부 보고자료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권향엽 의원이 한수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4년 ‘월성 TRF 부생물 자원화 추진 기본계획’에는 삼중수소 소량판매는 1g당 12만달러(약 1억6000만원)다. 대량판매는 1g당 3만달러(약 4000만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량판매와 대량판매 기준에 따라 약 4

배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소량판매 설명 부분에는 ‘소량판매 시 고가임’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수원은 지난 5월 2일 에이젠코어에 삼중수소 40g을 14억7620만원에 매각했다. 1g당 약 3690만 원이다.

한수원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량판매’ 가격이 해당한다.

하지만 권 의원이 한수원의 대면보고에서 확인한 내부 보고자료에서는 한수원이 에이젠코어에 판매한 것은 ‘소량판매’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내부 설명자료에 소량판매는 ‘TRF에서 생산되는 삼중수소를 운반용기(10g)에 직접 담아 판매’하는 경우고 대량판매는 ‘TRF 저장용기(50g)에 보관돼 있는 삼중수소를 추출, 1 판매’하는 경우를 뜻한다.

에이젠코어가 보유한 운반용기의 저장용량은 10g으로 한수원이 에이젠코어에 판매한 삼중수소는 소량판매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언론에 ‘삼중수소의 국제 시세가 12만 달러인 이유는 삼중수소에 용기 제작과 운반 비용과 인허가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에이젠코어에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3만 달러로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에이젠코어는 2017년 4월 3일 ‘이산 GTLS’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됐다.

설립 이틀 뒤인 5일 한수원 누리집에 삼중수소 저장운반용기에 대한 기술이전 공고가 올라왔다.

6월 27일 이산GTLS는 한수원과 기술사용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술이전을 받았다. 문제는 손 이사가 삼중수소 저장운반용기의 특허기술에 해당하는 ‘삼중수소 취급용기의 발명자 중 한 명’이라는 점이다.

한수원이 제출한 양사의 기술사용 계약서를 보면 ‘삼중수소 저장운반용기의 기술이전부서장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방사선환경연구소장으로 적시돼 있다.’

당시 방사선환경연구소장은 손 이사가

었다.

그는 에이젠코어에 분인이 발명한 기술을 부서장으로서 이전시키고 퇴직 3개월 후 그 회사의 임원으로 갔다.

권 의원은 “한수원 내부 설명자료로 ‘특혜매각’ 정황을 확인했다”며 “한수원이 에이젠코어에 판매한 삼중수소는 명백한 소량판매”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가 소관 기관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하늘세상’에서 마음껏 ‘래퍼’ 하세요

암 3기 판정 숨기며 래퍼 한수니와칠공주 서무석 할머니 하늘의 별이 됐다 향년 87세

“어머님! 전국에서는 아프지 말고 마음껏 래퍼 하세요”

칠곡군 할매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의 멤버 서무석(사진) 할머니가 하늘의 별이 됐다.

향년 87세.

서 할머니는 15일 오전 8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의 한 병에서 소천했다.

빈소는 대구 남대구 전문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17일 오전 엄수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랩을 하기 위해 말기 암 투병까지 알리지 않은 할머니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많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어르신들은 봄꽃처럼 세상을 등지신다. 칠곡의 모든 어르신의 값진 땀과 노력이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랩을 너무나 좋아했던 고인을 위해 유가



고서무석 할머니

족은 영정 사진을 랩을 하는 모습을 촬영 한 사진을 선택했고, 수니와칠공주는 추모 공연을 한다.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친손녀 전효정(33) 씨는 자기 손으로 할머니 시신을 염을 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 터 다른 일을 고사해왔다.

고인과 인연을 맺어왔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정에 국가보훈부장관과 래퍼 슬리피는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수니와칠공주는 칠곡 지역의 평균 연령 85세 할머니 여덟 명이 모여 결성한 8인조 힙합 그룹이다. 고인은 지난 1월 목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림프종 혈액암 3기와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고인은 랩을 계속하고 싶은 강한 열정으로 가족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 주간 개막식’ 공연 무대에도 올라 마지막 남은 열정을 불태웠다.

전국 첫 화석 전문 ‘달성화석박물관’ 오픈

임시개관 3주간 3만200여명 관람 ‘뜨거운 호응’... 교육 일감 운영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박물관인 달성 화석박물관이 약 3주간의 사전개관을 마무리하고 16일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달성군은 국·시비 등 총 265억원을 투입해 유가읍에 대지면적 8980㎡, 건축연면적 6042㎡,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달성 화석박물관을 조성했다.

달성박물관은 국내·외 화석 및 암석 2만여점, 보석원석 1000여 점 등을 소장하고 있다.

공룡발자국 화석, 해양생물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삼엽충·고래뼈 표본 등 다양한 볼거리는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내부 시설은 상설전시실, 화석도서관, 교육체험실, 카페 및 기념품점, 다목적실 등으로 이뤄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달성화석박물관 건물은 매력적인 내·외관 디자인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33회 대구시 건축상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식개관 후에는 개인·단체 방문객 모두 시설 전체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11월부터 학생 등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한다.

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사전개관을 통해 내부를 공개했다.

이 기간 유치원, 학교 등의 단체관람객을 포함한 방문 인원은 3200여명으로, 하루에 많게는 200명 이상이 박물관을 찾으며 호응을 얻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사전개관 기간부터 달성화석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지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지역의 새로운 관광·교육 중심 시설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사업비 314억 투입 광역철도 활성화...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사업이 타당성 검증을 통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은 원대·고성동, 태평로 등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역사 신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민숙원사업이다.

대구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채택하여 원대역 신설 사

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요청했다.

비용·편의 분석(B/C)을 통한 경제성 확보 논리개발, 지역 국회의원과의 관계기관 협조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국토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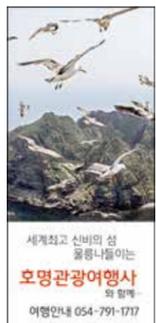
원대역은 서대구역과 대구역 사이 도시철도 3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위치에 지상역사로 신설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14억원(타당성 검증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설계가 진행된다.

원대역이 신설되면 구미, 칠곡, 경산지역 출퇴근 직장인들의 교통수요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과 환승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2월14일 개통되는 대구권 광역철도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사업으로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연장 61.85km이며, 영업노선명이 최근 ‘대경선’으로 확정됐다.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에서 칠곡, 경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숙원사업인 원대역 신설 확정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대구 산업선 철도 착공, 신공항 철도 추진 등으로 대구·경북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단체장 일정



이철우 경북지사는 16일 오전 도청 원용실(357호)에서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비 실·국·원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16일 오후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月刊 정치와시립 골독자들 결으로 !

月刊 정치와시립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시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시립을 발간, 독자 결의로 다가갑니다.

쓰레기장... 5년간, 안동·임하·영주댐 쓰레기 2705톤

안동댐 2019년 89톤
지난해 4755톤 으로
무려 53.4배 늘어

최근 5년간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임하·영주댐의 쓰레기가 급증했다. 안동댐의 쓰레기는 2019년 89톤에서 지난해 4755톤으로 53.4배나 폭증했다.



지난해 안동·임하·영주댐에서 '역대급'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탓이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천 상류 정화 활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어질 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관리 중인 댐 37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3만4155톤에 달했다.

댐별로는 충주댐이 7115톤으로 가장 많았다. 임하댐 5667톤, 안동댐 4755톤, 대청댐 4129톤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임하댐은 2513톤에서 5667톤(2.2배)으로, 영주댐은 103톤에서 1504톤(14.6배)으로 늘었다.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잦았던 기상 상황이 댐 쓰레기 증가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쓰레기는 홍수기 집중강우, 태풍 등에 의해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유역 오염원 점검과 하천변 정화 활동 등 선제적 유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이상기후의 '나비효과'로 하천·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쓰레기를 방지할 경우 수질오염 및 녹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는 물론 사전 정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영주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사진=김위상 의원실 제공)

정부 부른 의료 갈등 지자체 500억 혈세 낭비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484억 지출
재난관리기금 1081억 44.8% 집행
경북도 24억4천만원 중 5.5% 사용



정부가 만든 의료갈등에 500억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신설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없는 살림에 마련한 지자체 썬짓돈으로 사태를 버티겠다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상식(사진) 의원은 "정부가 만든 의료갈등으로 다른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썬짓돈이 500억이나 낭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 재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수습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하게 된다.

재난에 사용되는 기금의 성격 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그 예다.

지난 9월 26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례 규정을 추가해 의무예치금액을 의료대란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설된 특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미 사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

◇ 재난관리기금 현황(2024.2월~9월) ※10.4. 지자체 제출자료 기준

연번	시·도 (단위:백만원)	확정 (백만원)	집행 (백만원)	집행률(%)
합계		108,199	48,469	44.8%
1	서울	35,355	32,555	92.1%
2	부산	11,376	2,122	18.7%
3	대구	527	346	65.7%
4	인천	7,884	614	7.8%
5	광주	3,995	137	3.4%
6	대전	1,100	1,100	100.0%
7	울산	3,303	840	25.4%
8	세종	381	299	78.5%
9	경기	13,008	5,008	38.5%
10	강원	7,915	1,100	13.9%
11	충북	2,465	505	20.5%
12	충남	6,295	1,200	19.1%
13	전북	495	495	100.0%
14	전남	2,017	600	29.7%
15	경북	2,440	134	5.5%
16	경남	8,509	540	6.3%
17	제주	1,134	874	77.1%

금을 일제히 편성해 확정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확정된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은 약 1081억으로 확인됐다.

집행된 금액의 총액은 약 484억으로 44.8% 가량 집행됐다. 편성 확정 규모로는 서울이 약 353억으로 가장 컸다. 경기 약 130억, 부산 약 114억, 경남 약 85억, 강원 약 79억, 인천 약 79억 순이다.

집행 규모로는 서울이 약 326억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약 50억), 부산(약 21억), 충남(약 12억), 대전(약 11억) 순이다.

집행률로는 대전, 전북이 이미 편성 확정 예산을 100% 집행했다.

서울 92.1%, 세종 75.5%, 제주 77.1% 순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공백이 없었다면서 국민의 협조 덕이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추석 직전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률을 50% 수준에서 90%로 대폭 올려 이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 것과 다름없었다.

지방의료 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비상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기금 투입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자궁경부암 환자 증가 국가예방접종 예산 감소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
올해 대비 22.1% 감액



지난 8일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시행이 내년에도 어려울 것 아니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경기 부천시갑)의 질문에 "어렵다"고 대답했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 6303억원에서 2025년 1조 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됐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3100만원으로 24.9% 감소했다.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8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20년 61,892에서 2023년 70,109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8월까지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60,186명을 기록하며 산술적으로 90,279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두경부암과 구인두암도 2020년 39만 7951명과 5466명에서 2023년 44만 6322명과 6651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환자수는 38만 3321명과 6002명으로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각각 57만 5882명과 9003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사업'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 중 28개국은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대란... 경북대학병원 612억 적자

국립대병원, 올 상반기 손실 4127억
비상경영체제 예산 감축도 소용없어



의료대란 영향으로 국립대병원들의 올해 상반기 적자 폭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사진)은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이다. 이는 작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원보다 2515억원(155%) 증가한 액수다.

손실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16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북대학병원 612억원 △전남대학병원 359억원 △부산대병원 330억원 △충북대학병원 263억원 △경상국립대병원 210억원 순으로 적자가 컸다.

손익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전남대병원이었다. 이곳은 지난해 12억원가량 흑자를 냈지만 올해 대규모 적자로 3128%의 손익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북대병원은 2275% 손익감소율(195억원 적자), 충북대병원은 1961% 손익감소율(263억원 적자)을 기록했다.

백승아 의원실이 국립대병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경영위기가 심각해 신속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비상경영체제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책도 소용이 없었다.

강원대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자본잠식상태가 돼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이며, 현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명령에 따른 전공의 사직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등 분쟁으로 행정적 부담이 크다"면서 "내년에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지도전문의 부족 등으로 각종 평가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부산대병원은 현재 응급실 인력부족으로 교대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는 상태다.

전남대병원은 의료진의 '번아웃'을 우려했다. 의사인력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수가에 준하는 다양한 수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종충남대병원도 "현재 누적 적자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제주대병원도 지역 특수성 때문에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은 이렇듯 '고사 위기'에 처한 국립대병원을 위해 정부가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임기응변식 정책과 대응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중국산 '범벅'

농업용 공공드론 378대 중
276대 무려 73.0% '중국산'
39대고장 평균 261.6일 멈춰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가 중국산 '범벅'이다. 이 사실은 이만희 의원(사진·영천·청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드론과 전기농기계 등 각종 농기계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됐다.

조사에서 중국산 장비와 부품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일반 농기계가 190만 6736대에서 194만 9883대로 2.2%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만 6847대로 무려 2096.4% 폭증했다.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이 일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35개의 R&D를 크게 웃도는 57개의 전기 농기계 R&D를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전기 농기계 관련 용자 또한 68억 600만원에서 106억 6,500만원으로 56.6% 늘었다.

결국 전기 농기계의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51.2%)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산 의존도는 오히려 농정당국이 예찰 및 소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용 드론에서 더욱 심각하다.

실제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73.0%)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기관들은 해당 드론들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였다.

378대 중 39대(10.3%)는 고장으로 평균 261.6일간 멈춰서고 있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전경 및 경주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등을 위해 총 11대의 드론을 3,686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도입 운용 중이다.

모두 중국산으로 이 중 5대는 고장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상 멈췄다.

이만희 의원은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국정감사 취재반

뉴진스 하니, 국감서 눈물로 따돌림 호소...

연예인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최대관심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판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는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고용 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

자'라고 판단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것과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이 사안은 특정 아이돌 그룹의 문제나 가십성 이슈로 봐서는 안 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 시각자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급여 수준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고용부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15년 전에도 동방신기가 소속사의 부당한 계약조건의 갑질 행태 문제를 제기했고, 얼마 전에도 모 아이돌 소속사 대표가 폭언을 하고 성추행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문제가 영원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술이나 연예인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 방법은 노동법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 노동법 문제를 넘어서 타 부처와 협업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하이브가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은 100개 기업이다.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금 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하이브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평가한 이유를 봤더니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내용"이라며 "무시해"라고 얘기하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O)TV 삭제 당시사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져 있다"며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정환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저희가 하이브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뽑은 것은 국민 추천을 받았고, 단순히 수평적 조직문화만 본 게 아니라 이직률이 낮아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측면들을 봤다"며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뒹고 있다.

노사단체에 평판 조회도 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하지도 발견되지 않아서 민간전문가들까지 모인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인증 취소와 관련해서도 "저희 지방관서에 이 것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되어 있어 진정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강원랜드 5년간 카지노 부정행위 3000여건 적발...

지적사항, 2020년 118건
2023년 828건으로 급증
좌석 매매·중개 여전...
올해 1~7월 79건 집계



허중식 의원

최근 5년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적발된 부정 게임 행위가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부당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허중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된 지적사항 건수는 3024건이다.

2020년 118건에 불과했던 지적사항은 2021년 683건으로 폭증한 이후 2022년 973건, 지난해 828건, 올해 1~7월 422건

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다중게임이 19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인 일시적 게임진행 281건, 좌석 매매·중개 271건, 대리게임 223건, 코인방치 201건, 배당한다 미준수 45건 순이었다. 좌석 매매·중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매매·중개는 2021년 16건에서 2022년 89건, 지난해 84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만 따져봐도 79건이 집계됐다. 카지노 부정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 의원은 "최근 정부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 영업장 면적 확대, 테이블 및 머신게임 증설, 외국인 전용 게임 구역 배팅 한도 상향 등 규제완화를 발표했는데, 정작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당행위를 근절·예방하는 대책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건전한 사행산업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수명... "돈 많으면 8년 더 건강히 산다"

김남희 의원, 복지부 자료 공개
소득 상위 73.4세-하위 65.2세



김남희 의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졌다.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료,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인구 10만 명당 8.9명에서 2022년 10명으로 1.1명 늘었다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격차가 2018년 52.2%포인트(p)에서 2023년 56.5%p로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2018년 97.3명에서 2021년 117.4명으로 20.1명이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78.3명에서 79명으로 0.7명으로 격차가 커졌다.

고혈압 유병률도 남성의 경우 소득에 따른 격차가 2018년 5.4%p에서 2022년 7.7%p로 커졌고, 남성 비만 유병률도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같은 기간 1.1%p에서 4.2%p로 벌어졌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을 이유로 건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소득, 지역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불평등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일몰 코앞... "교육 당국 지지부진"

백승아 의원, "정부, 재정 부담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 '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연도 예산 학생수 x 1인당 지원단가(16092원)
※ 학생수 추계: (24) 124.3만명, (25) 124.4만명

구분	고교 무상교육 대상액	교육청 부담액(47.5%)	국가지자체 부담액(52.5%)	(단위: 백만원)
서울	364,277	173,031	191,245	
부산	123,731	58,772	64,959	
대구	103,760	49,286	54,474	
인천	128,150	60,871	67,279	
광주	74,499	35,387	39,112	
대전	70,909	33,682	37,227	
울산	54,204	25,747	28,457	
세종	15,897	7,551	8,346	
경기	606,107	287,901	318,206	
강원	36,732	17,448	19,284	
충북	49,116	23,330	25,786	
충남	63,347	30,090	33,257	
전북	55,157	26,200	28,958	
전남	43,781	20,796	22,985	
경북	66,172	31,432	34,740	
경남	113,117	53,731	59,386	
제주	19,902	9,454	10,449	
합계	1,988,857	944,707	1,044,150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올해 말 사라지는데,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아직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교육부에 무상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인 52억6700만원만 편성했다. 액수만 보면 99.4% 감액됐다.

무상교육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편성 관련 법적 근거의 효력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로, 국가(국고)와 교육청(교육교부금)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한다.

국회에는 현재 해당 조문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 존치하는 법 개정안 3건이 발의 돼 있으나, 정부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법안은 전날 기준 없었다.

정부·여당은 무상교육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에 분명히 있는 만큼, 무상교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는 입장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10조의2는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는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되, 사립학교에 한해 예외로 한다.

교육부는 백 의원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관계부처, 교육청과 함께 재원 조달을 협의하겠다"고만 했다. 지난달 29일 동일한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던 바 있다.

LH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 50㎡ 미만...

전용 50㎡ 미만 74만3465가구
35㎡ 미만 초소형 비중도 35.7%



황순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 전용면적 50㎡ 미만 소형 주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순하(사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88만 7397가구 중 전용 50㎡(15평) 미만 비중은 83.8%(74만 3465가구)였다.

구체적으로 전용 14㎡ 초과 21㎡ 이하가 2만 7055가구, 21㎡ 초과 35㎡ 이하가 28만 9970가구, 35㎡ 초과 50㎡ 이하가 42만 6440가구였다. 전용 50㎡ 초과 70㎡ 이하는 14만 3932가구였다.

10평 미만(전용면적 14~35㎡) 초소형 주택이 31만 7025가구로 전체의 35.7%에 달하는 셈이다.

2004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일 때 12㎡(약 3.6평)으로, 2011년 2㎡ 한 차례 확대됐지만 14㎡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본의 최저 주거 면적 수준은 세대 인원별로 최소 25㎡~최대 5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도 주거 면적을 별도로 최소 55㎡~최대 125㎡의 면적으로 제시해 국민

의 적정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미국은 주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거실, 침실 등 필수 주거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천정고, 바닥 표면적, 폭을 통해 거주 가능한 실공간의 최소면적을 정의하고 있다. 천정고는 거주용 공간의 경우 2.28m 이상이어야 하며, 폭은 주방을 제외한 공간이 2.13m 이상이어야 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11.15㎡ 이상의 실 1개 이상, 조리·생활 또는 생활·수면 목적의 공간은 13.37㎡ 이상, 침실은 6.50㎡ 이상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이면 1명이 추가될 때마다 4.65㎡씩 증가하여 최소 20㎡~최대 57㎡의 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도 상세 주거 기준은 지방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건축물 허가를 결정한다.

사용 인원, 연령, 침실의 개수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최소 38㎡부터 최대 142㎡로 총 17개 유형의 최소면적 기준이 산출된다.

황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 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3년이 넘는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의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속세"라며 "국내 공공임대물 건설하는 LH가 먼저 적정 주거 기준을 도입해야 민간 건설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4

경북교육청, '꿈키움 작은학교' 인증신청 접수...5곳 선정

경북교육청이 이 달 말까지 2024학년도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한다. '꿈키움 작은 학교'란 급격한 학령인구 감

소에 대응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교육청이 2020년부터 시행해온 우수 운영 작은 학교 인증 제도다. 매년 5교씩 인증을 받아 지금까지 20교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 인증 신청 자격은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중 지난해 4월1일 대비 올해 9월1일 학생 수 증가율이 5% 이상, 지난해 3월1일부터 현재까지 언론 홍보 실적이 3건 이상이어야 한다.



성주군의 명소 성주호 명품 관광지로 재탄생

성주호 관광지 개발 일감 민간자본 투자 유치 절실

경북도와 성주군이 손잡고 성주군의 명소 성주호를 명품 관광지로 개발한다.

도는 15일 성주군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시군 간담회'를 열고, 성주호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관광지 지정과 개발이 성주군 경제 활성화와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앞으로 성주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홍인기 경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정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민간의 사업성이 부족하고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던 시군의 숙원과제들을 투자 펀드로 도와 함께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 성주호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성주호 개발에 따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투자 펀드는 민간자본 유치와 공공자본의 협력을 촉진하는 도구로, 성주호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날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성주군은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탐색할 기회를 얻었다. 성주호는 지난 20년간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성주호가 관광지로 공식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개발에는 1313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민간자본은 680억원이다.

군은 성주호 관광지 지정 이후, 수립된 조치계획에 따라 개발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성주호는 별마을 관광지 컨셉으로 조성된다. 별마을 관광지는 △별 섬 지구 △별마을 지구 △별빛 호수레저 지구로 구분된다.

별 섬 지구는 성주호 수변 경관을 활용한 산책로와 전망대를 꾸민다.

별마을 지구는 모노레일과 캠핑장 같은 가족 친화형 시설을 만든다.

별빛 호수레저 지구는 수상레포츠 시설과 집라인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때문에 성주호는 다양한 휴식과 체험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성주호 개발에 있어 민간과 공공의 협력 모델이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강조했다.

민간이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을 발굴, 공공이 이를 제도·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은 지역 활성화에 크게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은 체류형 관광지로서 성장 가능성을 확대,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도재훈 기자



군위군4-H연합회 바비큐축제 군위4-H연합회는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열린 바비큐축제에서 4-H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는 지난 12,13일 이틀간 열렸다. 행사기간 사과, 양파, 대추즙, 사인머스켓, 고구마, 메리 골드, 허브 등 고품질의 농산물을 다양한 소품을 활용, 회원들이 직접 전시하면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 청년농업인을 대표하는 4-H연합회 농산물 홍보 부스를 통해 군위군 청년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군위군 제공)

대구시,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총매진

기술 기반 기업 더 크게 성장 애로사항 불필요한 규제개선

대구시는 15일 대구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올해 세번째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관계부서장,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대구테크노파크,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 및 규제사항 12건을 청취하고 범기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참여기업들은 △ 회사진입을 위한 유턴 허용 △ R&D 인력 채용 지원 △ 인공학 집적지 계약 가능 터 확대 △ 연구개발특구 지정 확대와 유관기관의 기술이전 협조 등 다방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관계부서·기관은 다각적인 해결책 제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동구 의료R&D 지구에 신규 공장을 준공한 ㈜덴티스는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도로에서 회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 및 유턴 허용을 요청했다.

동부경찰서는 해당 차선과 주변의 교통흐름 등을 파악 후 허용여부를 검토한다.

서보모터와 드라이브 등 전동화 부품을 생산하는 엘에스메카피온(주)은 최근 기존 R&D 인력의 이탈로 대체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인력의 추가 유출 우려와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회사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과 연계, 고급 연구인력의 지역 내 취업과 정주환경 조성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청년연구자를 지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신산업 현장기술 중심의 연구 전문인력(석·박사)을 양

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애로를 해결한다.

1개사(법인) 1개 필지만 입주 가능했던 금호위더리스 안광학산업 집적지의 분양가능 터 확대 건의에 관계부와 협의, 추가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보다 넓은 사업장을 원하는 업체의 유입과 투자를 촉진한다.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계와 기술이전 지원,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등 연구소 기업의 성장 지원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연구개발특구가 추진 중인 관련 사업 등을 설명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당일 즉시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및 부처와 지속 협의, 개선해 나간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로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파크골프장 천국 도시 자리매김

대구 최초 파크골프 공인구장 2개소 인증 획득 기대감 충족



달성군은 다사읍 세천 파크골프장이 논공을 위한 파크골프장에 이어 두 번째로 공인구장 인증을 획득했다.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용객들의 기대감 또한 크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향후 조성되는 신규 파크골프장뿐 아니라 기존 파크골프장 시설도 질적 향상으로 늘어나는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지난 7월부터 현장 심사와 함께 파크골프장의 시설 및 설치물 기준에 대한 40여개 항목을 점검, 보완절차를 거친 끝에

천파크골프장을 공인구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다사 세천 파크골프장은 금호강변에 위치한 전체 36홀 규모(터 면적 5만2000㎡) 시설로 휴게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주변에는 농구·축구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도 함께 조성, 파크골프 외에도 즐길거리가 많다.

지하철 2호선 다사역에서 도보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도 용이하다.

금호강과 공산을 끼고 있는 다사 세천 파크골프장은 연간 이용객이 약 11만명, 하루 최대 이용객이 500여명에 달한다.

공인구장 인증 획득으로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 개최도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등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옥포 파크골프장과 현풍 원오 파크골프장이 완공된다. 향후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에 36홀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기존 18홀 규모인 구지 평촌 파크골프장을 27홀로 확장한다. 18홀 규모의 하빈 파크골프장과 구지 오설리 파크골프장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조여은 기자

가을철 산악사고 빈번... 조심 또 조심

산악사고 주의보 발령 3년간산행 임산물채취 산악사고 총 68건발생

경북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가 '산악사고 주의보'(10월16~11월10일까지)를 내렸다.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산행 및 임산물 채취 등 각종사고가 발생하는 탓이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최근 가을 단풍 등 산·야생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고 말했다.

그는 "조난·낙상 등 사고가 나면 탈진 및 저체온증 증상으로 등산객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산행 전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행 및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악 사고는 총 68건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9·10월이다.

이 기간 36건(62.9%)의 사고가 발생,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조난 사고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3일에 울진군 서면 왕피리 야산에서 한 남성이 버섯을 채취하던 중 길을 잃었고, 7일에는 포항시 북구 내연산에서 60대 남성이 하산 중 추락하는 등 야생 버섯 및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일어난 실족, 조난 등 사고는 등산 및 임산물을 채취하는 데 집중, 일몰 시간이



다 돼 하산하는 등산객들에게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 전 사전에 기상예보를 확인 △일몰 전 산악 △여벌의 옷과 랜턴, 예비 배터리 준비 △만드시 2인 이상 동행 등산로 이용 △일몰 고려해 오후 4시 이전 하산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발령된 산악사고 주의보는 최근 경북 관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발생 현황을 분석,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도민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령했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기쁨'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6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성군, '최치원문화제' 연다

'제3회 최치원문화제'가 오는 19,20일 이틀간의 성군 최치원문화관 및 고운사일대에서 열린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과 최치원문화관, 고운사들이 함께 불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풍성하게 마련했다. 천년숲길에서 절정에 달한 단풍들을 보며 걷어가는 가을을 즐기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평화와 평등, 화합과 소통에 패밀리를 더하다'라는 구호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첫날 오전, 최치원문화제 개막을 고하는 고우제를 시작으로 참석자 모두가 가을하늘로 소원풍선을 날리며 개막을 알린다.

행사에는 이동체 에코프로 삼고교문이 인백기천 정신에 대해 관람객들과 직접 소통한다. 박재성 기자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 칠곡 베트남팀 우승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 외국 인도움센터가 주관한 제5회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가 지난 13일 황성축구공원 5-6 구장에서 개최됐다.

대회는 경주를 비롯해 영천, 경산, 왜관, 칠곡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5개국 16개 팀이 참가했다. 팀은 베트남 8팀, 태국 3팀, 인도네시아 2팀, 네팔 1팀, 페루 1팀, 다국적 1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칠곡군의 베트남 LOCPHAT FC팀과 경주시의 베트남 SHT FC 동천팀이 결승전에 진출해 치열한 접전 결과 칠곡군의 베트남 LOCPHAT FC팀이 최종우승을 차지했다.



황오 커뮤니티센터 준공... 원도심 활성화 탄력

총 162억 예산 지상 7층 규모 주변 건축물 중 최고층 특징 지속성 있는 콘텐츠 점포 입점

경주시가 쇠퇴하는 원도심에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15일 경주시 원화로 255(황오동 129-1) 일원에 황오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박승직 경북도의원, 박기섭 황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역단체장 등을 비롯한 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시설 관람에 이어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한마당을 통해 화합의 장을 열었다.

이 사업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거점시설로 구도심의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소통 공간을 제공하

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이달까지 총 1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5987㎡, 지상 7층 규모의 센터를 조성했다.

센터 1-6층은 오픈 커뮤니티실, 강의실, 다목적 세미나실, 상생협력상가 1호가, 2-5층은 주차장 77면이 들어선다.

7층은 상생협력상가 4호와 전망대 용도로 활용된다.

상생협력상가와 전망대가 위치하는 7층은 주변 건축물 중 최고층으로 옛 경주역과 동부

사적지 등 주변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제공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주민, 청년 창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성 있는 콘텐츠를 가진 점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조성한 주차장은 원도심 내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 이어서는 도시재생 한마당을 열어 지역 주민 중심의 문화공연,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시는 향후 황오 커뮤니티센터 거점시설을 활용한 지역 주민주도의 행사를 기획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이후에도 경쟁력 있고 지속성 있는 축제사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 낙후된 원도심에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거점시설이 들어섰다"라며 "향후 이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물론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남면 '환서교' 재가설 사업 마무리

노후화 안전진단 D등급 접속道 100m 재정 비해

경주시는 양남면 '환서교' 재가설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양남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고 15일 밝혔다.

환서교는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던 1970년대 마을 주민들의 성금으로 건설된 교량이지만, 노후화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가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2019년 8월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올해 6월 교량과 진입도로를 조성했고, 지난달 기존 교량 철거와 조정 공사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 35억 원)이 투입됐고, 교량 길이는 96.5m에 폭은 9.9m다.

교량 재가설과 함께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 100m 구간을 재정비했다.

준공식은 15일 오전 11시 환서교 진입로에서 개최됐으며,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최덕규 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전통 민요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경과보고, 기념 퍼포먼스, 현장 투어가 진행돼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된 순간을 함께했다.

경주시는 새로운 환서교가 단순한 교량 복구를 넘어 양남면과 환서리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서교 재가설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기쁘다"며 "새로운 교량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경주공항 이용객이 경주 사적지를 방문하면 50% 관람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포항경주공항 이용객 사적지 방문 50% 할인

경주지역 사적지 등 각 9곳 공항 활성화 · 관광객 증대

포항경주공항 이용객이 경주 사적지를 방문하면 50% 관람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진에어는 포항경주공항 이용 확대와 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포항경주공항 이용 항공

권을 제시하면 탑승일 포함 3일간, 경주지역 사적지 등 각 9곳 장소마다 인당 관람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석정, 김유신장군묘, 무열왕릉, 오릉 등 4곳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동공과월지, 천마총, 황룡사역사문화관,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등 4곳은 3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관람료가 감면된다. 동궁원은 5000원에서 2500원으로 관람료가 할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관람료 감면 혜택으

로 지역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경주공항은 지난 2022년 7월 지방공항 활성화 및 경주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포항공항에서 명칭을 변경했으며, 운항노선은 김포 1회 왕복, 제주 2회 왕복 편성돼 있다.

현재 공항주차장은 무료 개방 중이다.

경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보문단지과 공항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하루 3회 왕복 운행 중이다.

경주시관광진흥위원회 발족

경주시는 15일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관광진흥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위원회는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됐고,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와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관광학계, 시의원, 관광기업 대표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광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위원장)이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지역 관광 현안 사항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향후 MZ세대 관광 트렌드 정책, 전 시산업, 홍보마케팅 전략, 관광진흥 5개년 계획 50개 구체화 사업 등에 참여해 관광 홍보 및 지역 관광 미래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송호준 부시장은 "이번 관광진흥위원회 발족으로 APEC 정상회의의 경주 홍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 같다"라며 "지역의 관광자원과 위원회를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 관광 자원 및 상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오락X성동시장' 야시장 이틀간 행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먹거리 컨설팅 레시피 선보여

경주시는 24~26일까지 사흘간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3층에서 '황오락X성동시장' 야시장을 개최한다.

경주시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성동시장이 협업해 원도심의 지

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상인 먹거리 △지역 예술인들의 음악 공연 △체험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펼쳐진다.

이번 야시장에서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중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성동시장과 함께 진행되었던 먹거리 컨설팅으로 개발된 레시피를 활용한 상인 먹거리를 선보인다.

정수장 식수, 방사능 분석 기준 '충족'

총 16개 품목 시료 채취 삼중수소 방사능 미검출

경주시가 2024년도 3분기 수산물과 정수장 식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유통되는 갈치, 조기 등 10종 15개 수산물과 일본수입식품(간장) 1종 1개 등 총 16개 품목의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분

석 전문가인 부경대 방사선과학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 결과 일부 시료에서 극소량(0.097~0.154Bq/kg)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허용기준치(100Bq/kg)에 크게 못 미쳤다.

원전 주변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위해 원전감시관측망 감시기가 지역 6곳의 정수장 식수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을 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보다 자세한 품목별 분석 결과는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원전관련소식→환경방사능감시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나흘간 개최

산림 가치 재조명 · 관광 활성화 미디어아트 활용 주제관 준비

경주시는 오는 18~21일까지 나흘간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는 경주시를 포함해 산림청, 경북도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산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림 산업과 관광의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박람회 기간 산림 정책 홍보관과 함께 숲과 문화 체험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대한민국의 숲 교류관' 등 주제관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임산물, 목재 가공품, 숲속 캠핑 장비 등을

소개하는 기업관과 지역 임산물 홍보관도 운영되며, 산림 환경 연구원과 수목원 등 관련 기관들도 참여해 산림 복지와 미래 과학 기술을 선보인다.

'산의 날' 기념식, 산림 포럼, 라이브 커머스, 숲 레포츠 체험 등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과 유아숲 교육 세미나도 준비돼 있다.

개막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경주엑스포대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유공자 포상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곡 기탁 행사도 함께 열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토 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이네 힐링캠프' 진행

지역 내 19~39세 45명 힐링 명상 · 숲 체험 활동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지역 내 청년(19~39세) 45명을 대상으로 '청년이네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동학교육수련원과 라산재에서 진행했으며, 제철음식으로 힐링 도시락 만들기, 힐링

명상과 숲 체험 활동, 청년 정신건강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주시는 고용 불안과 실업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우울과 스트레스, 자살 위험 등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이번 캠프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홍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불안과 우울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경우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54-777-1577)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 고향 기부금 전달

NH농협은행 최진수 경북본부장이 14일 영양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영양군 석보면 출신인 최진수(53) 경북본부장

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1998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2013년 농협중앙회 영양군지부 농정담당, 2023년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등을 역임했

고, 올해 2024년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작년 고향사랑기부금에 이어 올해 1백만 원을 기부했다. 최 본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양에 기부하게 되어 행복하다. 고향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청송, 사과 수확기 대응... 인력 지원 '본격화'

지난해 사과 작업 672명 중개 지원센터 140 농가 800명 투입 지자체 MOU 체결 인력망 구축

청송군은 본격적인 수확기 시작을 맞아 농촌 인력 지원을 본격화한다.

지난 5월 사과 적과 작업에 135 농가에 672명의 인력을 중개하여 봄철 농번기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이번 가을철 사과 수확을 앞두고 청송군영농일자리지원센터는 140 농가에 800여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예정으로, 농업인들이 일손 걱정 없이 적기에 수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청송군영농일자리지원센터는 (사)대

한노인회 부산시수령구지회 및 울산광역시지회와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인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사전 영농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근로자를 농가에 투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숙식, 교통비,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을 지원해, 농업 근로자들이 청송군에서 안락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인건비를 안정시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고통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청도, LPG 배관망 구축 설명회

청도군은 지난 8일 풍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청도군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87.5억 원을 투입하여 풍각면 송서리 일원 약 850여 세대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송서리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연(산업경제지원장) 청도군의회 군의원 및 한국LPG사업관리원 등 청도군 관계자와 LPG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배관망을 설치해 노후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 사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LPG 유통구조 단순화로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조여은 기자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이끌어 주길”

예천군농업인대 수료식 15차시 70시간 운영해

예천군은 14일 농업인회관 3층에서 교육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천군농업인대학 사과 심화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과 다축형 재배기술 향상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사과 다축형 유품목 수형구성과 초기관리 등 다축과원 조성에 필요한 교육과정(15차시, 70시간)으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유럽의 다축 수형을 국내에 최



초로 도입한 (취한)국과수기술과 협력해 윤태명 교수를 포함한 강사진의 알찬 강의로 이뤄졌다.

선진지 견학과 교육생 농장 현장 컨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얻으며 40명 가운데 36명 이수료, 9명이 개근했다.

교육 기간 중 교육생 자치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박성훈 박기석 교육생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청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생들의 농업인대학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예천 사과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사명감으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업기술센터도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릉군, 노인 무료 안검진

울릉군보건의료원은 '2024년 노인 무료 안검진'을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지난 14일 천부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낮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과사의를 포함한 이동검진팀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2022년부터 매년 안검진을 신청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과 전문의 1명과 진행요원 5명으로 구성된 한국실명예방재단 이동검진팀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정밀검사(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와 수술상담 및 돋보기 배부 등을 실시했다. 정윤환 기자

울진,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

울진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수리비용 30만원 이내 100% 지원, 그 외의 일반 장애인의 경우 수리금액의 50%,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방문하여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아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보장구를 수리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바닷속 폐기물·오물 수거...생태 복원 활동

한국수산업경영인 영덕군 수중 정화활동·물품 기부 지역 이미지 제고 위해 전개

한국수산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는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오는 18일 남정면 구계항에서 수중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 선원에게 헌옷을 기부하는 행사를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잠수장비를 이용해 바닷속 폐기물과 오물을 수거하는 등 항구내 전반적인 환경정비를 시행하는 활동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해 생태 복원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어 헌 옷 기부는 지역사회가 기부한 옷들을

연선했던 외국인 선원과 모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행사로, 외국인 선원들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이자 이웃으로 자리 잡고 안정적인 어업 작업과 생활을 돕기 위해 진행된다.

연합회는 매년 수중 정화활동을 통해 수자원 보호와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선행을 펼치는 등 지역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김도수 회장은 “회원들이 사업을 경영하는 와중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깊어 쉽지 않은 상황에도 매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름답고 깨끗한 영덕의 청정바다를 수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자부심으로 소중한 우리 사회와 바다를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청송사과축제 홍보...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부

공식 캐릭터 '청이와 송이' 16종 18일부터 선착순 무료

청송군은 청송사과축제 홍보를 위해 청송군 공식 캐릭터인 '청이와 송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을 18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이번 이모티콘은 10월 30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제18회 청송사과축제'를 맞아 제작했고, 주왕산, 주산지, 청송정원 등 청송의 대표 관광지를 배경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이모티콘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신소카페 청송군'의 매력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청송군청' 채널을 추가하면 선착순 5만 명까지 내려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해 이모티콘 배포 시 7분 만에 전량 소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라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청이와 송이 이모티콘을 이용하길 바라며 제18회 청송사과축제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꽃비 맞으며 청송사과에 취하다

어느 멋진 가을날
백일홍 흐드러진 청송정원에서
때론 꽃비도 맞고, 때론 꽃바람에 취하며
우리, 날마다 꽃길만 걸어요.

내게 선물 같은 당신
사랑해요! 청송사과!

#명불허전 #청송사과 #청송정원 #가을명작

영천 신녕 지역단체, 國유공자 보훈밥상 제공

영천시 신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신녕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 51명에게 밑반찬과 김치로 구성된 '건강한 보훈밥상'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기부로 조성된 '함께모아 행복금고' 모금액으로 운영되는 신녕면의 특화사업으로, 질병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어르신에게 영양가 있

는 식사를 지원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밥상을 받은 한 어르신은 독거노인 세대의 국가유공자로서 "이렇게 김치와 밑반찬을 배달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맛있게 먹고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0만 방문 유럽 축제 '안동 전통음식' 알렸다

포도수확축제 참가 안동 홍보 프랑스 대표 종합 야외 행사 소고기 육점 · 종가 전통주 호응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시각 11~13일까지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개최된 포도수확축제에 참가해 관광거점도시 안동을 홍보했다.

올해 91주년을 맞은 '몽마르트르 포도수확축제'는 매년 10월, 포도 수확철을 맞아 파리에 유일하게 남은 포도밭의 수확을 축하하며 프랑스 각지의 와인과 음식을 맛보고 거리 공연,

콘서트, 라이브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종합 야외 페스티벌이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잠재 관광객들에게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전통 음식을 통해 안동의 문화와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파리 시민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 등 약 5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에서 운영한 부스에서는 500년 된 안동의 고조리서인 수운잡방(需雲雜方)에 기록된 소고기 요리인 '안동 소고기 육점'과 '종가 전통주' 등 안동의 전통음식으로 무료 시식회를 열어 프랑스 요리 일색인 축제 현장을 찾은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개최된 포도수확축제에 참가해 관광거점도시 안동을 홍보했다.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축제 현장에서 안동관광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홍보 책자를 활용해 안동의 대표적

인 관광지와 문화제, 축제와 음식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

지고 있는 유럽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동에 대한 호기심과 인지도를 높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베트남벨리 홍보... 봉화 '베트남 등불 페스타' 연다

17~19일 봉화 은어송이테마공원 군 역점 조성사업 분위기 조성

2024 봉화 '베트남 등불 페스타'가 오는 17~19일까지 3일간 봉화 은어송이테마공원 일원에서 이국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봉화 군민과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베트남 등불을 주제로 은어송이테마공원 일원을 색색깔의 베트남과

한국의 전통 등불 조명으로 꾸며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주며,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인증샷도 남길 수 있다.

등불 전시와 더불어 매일 오후 6시 이후 베트남 전통 공연이 펼쳐져 베트남 전통 악기와 춤, 퍼포먼스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번 특별공연은 베트남 현지의 '호치민 국립대학교 공연단'에서 직접 선보인다.

이외에도 전시·먹거리·체험 부스 등도 운영

된다. 1일차는 오후 5시부터, 2~3일차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19일 오후 3시부터는 인도교에서 진행되던 감성 버스킹 공연을 축제와 더불어 진행해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전시·체험 부스에서는 베트남 전통 놀이와 악기, 전통의상 아오자이를 입고 인생네컷도 찍고 베트남 음식도 즐기며 가을날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페스타를 주관한 세계유교문화재단 관계자는 "2024 세계유교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한-베 양국 간 우호교류 중심지로서 봉화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역점사업인 k-베트남벨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다문화가정과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며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경 '점촌점빵마켓' 행사

문경시는 문경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난 12일 점촌 문화의 거리에서 올해 마지막 '점촌점빵마켓'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점촌점빵마켓'은 점촌1,2동 중심지가 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역전상점가, 행복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주최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총 7회 진행하였으며 약 2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당일 행사도 50여 팀의 셀러들이 참여하여 수공예품, 의류, 간단한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 페이스페인팅, △ 달고나 체험, △ 공예 체험 등 어린이 체험들과 △ 랜턴 플래이댄스, △ 버스킹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상인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으로 점촌점빵마켓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동안의 행사를 통해 원도심의 상권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칠곡군 왜관시장 19일까지 야시장 운영

외식업 전문가 품평 입점 문화관광형 프로그램 준비

칠곡군 왜관시장은 지금 맛깔난 야시장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왜관시장은 지난 9월 27일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매주 금·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시장 내 구간을 교차하여 야시장을 개장·운영한다.

이번 야시장 참여 셀러(판매자)들은 시장 내부 상인과 칠곡군 관내 상인 5:5로 구성되어 사전에 외식업 전문가로부터 먹거리 품평을 받아 입점하였으며 매주 개최 시마다 방문객들의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등 먹거리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야시장 운영과 함께 왜관시장 야외발달출 게임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칠곡군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최초로 게이미피케이션 형식 야외 발달출게임을 개발했다.

또한 야시장 기간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방문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왜관시장으로 방문객을 유인하여 시장내 관광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왜관의 밤을 많이 찾아달라"며 "이번 야시장은 왜관 원도심 부흥의 마중물로도 심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주시, 인플루엔자·코로나 동시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10월 18일부터 순차 접종

상주시보건소는 10월 1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코로나19 동시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세 이상은 10월 15일, 65세 이상은 10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의 경우 지정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으며, 지정위탁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와 동시접

종이 가능하다.

65세 미만 취약계층 주민, AI대응요원 등은 10월 18일부터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 10월 11일부터 지정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금숙 질병관리과장은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 기관을 한번 방문해 편리하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동시에 접종받고 옮겨줄을 안전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의성군, 기업 이전 활성화...컨설팅 공모 선정

행안부 전국 6개 지자체 선정 비수도권 지자체 투자 강화

의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기업 유치 의지,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은 대구·경북 신공항 유치와 의성바이오텔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의성군에 늘어나는 투자수요가 실무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 투자환경을 사전에 조성하기 위한 목

표로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김주수의 의성군수는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투자환경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의성군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유치진흥금을 조성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영주 제일고 봉사동아리, 독거노인 반찬 전달

외식업 전문가 품평 입점 문화관광형 프로그램 준비



영주시 제일고등학교 봉사동아리 '외로움 해소 프로젝트'는 지난 14일 영주2동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찾아 즉석요리제품과 반찬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와 사랑누리 동아리 연합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반찬 키트를 준비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만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김정환 학생은 "처음엔 막연하게 좋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직접 가본 골목길과 어르신들을 보며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라며 "낯은 골목과 오래된 주택, 반찬을 받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고 말했다.

정병곤 영주2동장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해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영주2동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주제일고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기 기자

안동의료원 '호스피스'의 날 장관 표창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은 이동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이 지난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0월에 진행하는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 정착과 호스피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동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말기암 환자화 그 가족에 대한 전인적 돌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동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존엄한 생애 말기를 위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편안한 임종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복한 동행 영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기간: 2024. 10. 7. (월) ~ 11. 5. (화) 30일간
- 감사기간: 2024. 11. 26. (화) ~ 12. 2. (월) - 예정
- 제보대상: 시정 전반(예산낭비, 위법·부당한 사항 등)
- 제보방법: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cjstk0215@korea.kr)



시민의 소중한 바람을 담아
더 나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갑균



의원
하기태



의원
이영기



의원
이영우



의원
우애자



윤리특별위원장
김용문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
배수예



의회운영위원장
권기한



부의장
김종욱



의장
김선태

